현불 논단

6.13 지방선거와 연기의 정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대중은 평소 침묵의 파리를 틀다가
의사 표시 순간 이를 풀고 폭발한다

6.13 선거서 자한당 등 야당 참패
여러 누수구멍에 침몰한 게 아니라
선거 바다서 '침묵의 파도'로 난파

이데올로기형 '기계형 사유' 정치가고
한국 '정원형 사유' 정치로 전환 중
상호 호혜 '연기의 정치'와도 맞닿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연출되는 익숙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잘못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정말 잘못을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생각도 해본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참패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극적인 변화, 당대표의 언행, 당구조의 비민주성, 보수의 분열과 보수 정권의 부정적 그림자 등 다양한 견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은 현상적인 것이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의 바다에서 '삼각파도'를 만나 난파가 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 저러한 누수의 구멍에서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교수 초년시절에 번역 출판한 〈여론의 정치사회학(The Spiral of Silence)〉이 떠오른다. 이 책의 중요 개념 틀은 '침묵의 확산과 폭발'이다. 대중들은 침묵의 똬리를 틀고 움츠리고 있지만 정작 의사 표시의 순간이 오면 침묵의 똬리를 풀고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중의 침묵과 의사 표시의 미묘한 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지난 미국 대선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침묵의 삼각파도를 만나 난파한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진보의 승리와 보수의 참패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기존의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투표의 경쟁'에서 이겼을 뿐이다. 제대로 된 나침판과 항해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지 침묵의 삼각파도에 난파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정치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원(The Garden of Democracy)〉으로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한 에리 리우와 닉 하우어는 '기계형 사유'에서 '전원형 사유'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형 사유'는 세계와 민주주의를 하나의 기계 장치로 보고 기계를 다루듯 정치를 한다. '전원형 사유'는 이 세계와 민주주의를 얽히고설킨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 20세기까지 '기계형 사유'가 주도하는 정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 그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계형 사유'가 이끄는 정치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이데올로기적 정치 게임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있다. '기계형 사유'는 사물을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 보면서 관리하고 규제하고 효율과 이익 그리고 승리를 강조한다.

반면 '정원형 사유'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것으로 보면서,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이고, 자율과 자치, 승패의 이분법 극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는 것이다. 정원은 결코 기계 다루듯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정원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호혜하고 서로 즐겁게 노닥거리면서 정원을 일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참패는 '기계형 사유'의 정치 틀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기꺼이 말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이제 '기계형 사유'의 정치 틀을 벗어나서 '정원형 사유'의 정치 틀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원형 사유'의 틀을 가지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권력의 장악에 있기에 그러하다. 권력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에서 나오기가 쉽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험이 한국 정치문화의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정원형 사유'의 정치는 바로 붓다가 제시한 '연기의 정치'다.

社說

기부문화도 '대기설법' 시대

최근 사회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풀뿌리 기부문화가 조성되는 가운데 불교계에도 이 같은 바람이 불고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시작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까지 불교계 신행과 복지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앞장서 그 의미가 크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니즈(needs)'는 더 이상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기업들만의 용어가 아니다. 한동안은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의 기술로 통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과거에 비하면 그 열기가 많이 식었다. 모금단체의 공금횡령이나 유용 파문 등의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모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모금 수혜자들의 "~은 그만 받고 싶다"는 말이 '갑질 논란'으로 회자되면서 기부문화에 한층 더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내가 주니 너는 군말 없이 받아야 한다"는 기부자의 견해 또한 갑질이 된다. A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A라는 것은 상식을 갖춘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부처님이 중생 개개인의 근기에 맞춰 대기설법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수승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제는 불교계서 활동하는 복지단체들이 대기설법의 가치를 되새겨 수혜자 중심의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때다.

미륵사지 석탑 수리 완료에 부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재 중 하나이다. 본래 크기가 25m로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사 당시 미륵사지 동탑은 이미 소실됐고, 서탑은 남측이 완전 파손돼 있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쿄대 공과대학 교수는 조선총독부에 긴급보수를 요구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미륵사지 석탑 남측면을 콘크리트로 발랐다. 당시에는 신공법이었겠지만, 콘크리트는 화강암 소재 문화재의 백화현상과 풍화를 촉진시킨다. 최악의 보수가 된 것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는 1998년에 들어서야 결정됐고, 20년에 걸쳐 해체와 보수, 조립들이 이뤄졌다. 단일 문화재로서는 최장 기록이다. 수리가 완료된 석탑에는 흉물스럽게 발라진 콘크리트가 전부 사라졌고, 현존하는 기록에 근거해 온건한 모습을 되찾게 됐다.

이와 함께 20년간 석탑을 보수·수리하면서 한국의 문화재 보수 기술은 확실히 성장했다. 관련 기술 특허만 5건을 냈고,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됐다.

무엇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문화재 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은 의미가 크다. 추정을 통한 원형 복원을 지양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1992년 맞은편에 원형 복원된 미륵사지 동탑은 문화재 졸속 복원의 대표 사례였다. 관련 부재를 5%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복원 2년 만에 이미 하부에 균열이 발견됐다. 그만큼 문화재 수리·복원은 오랜 시간을 연구·개발해 이뤄져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사례가 향후 문화재 수리·보수·복원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SNS 포교, 온-오프 협업 시급

전법 포교에 SNS를 활용한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생명평화법당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교계언론이 구독 확장을 위한 플러스친구를, 대불련 등 교계 단체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종단 차원의 SNS개설은 사실상 최초다.

전문 앱분석 사이트 와이즈앱에 따르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카카오톡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에 종단의 소식과 콘텐츠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은 큰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개설 후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해당 실무자는 개설 이후 가입이 저조하다고 토로한다. 시범단계라 제공 콘텐츠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칫 종단 차원의 첫 SNS개설이 그대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적극적인 이벤트와 홍보로 효과를 본 곳이 있다. 바로 수원시다. 지난해 수원시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가입자 수보다 많은 28만명의 가입자가 유치돼 화제가 됐다.

분석기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은 것은 수원시가 진행한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였다.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는 카카오톡에서 수원시와 친구를 맺으면 수원시 주요관광지와 관광체험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생활 속에서 쓰는 SNS에서 친구를 맺기만 하면 혜택이 제공되니 파급력은 엄청났다. 이벤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1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일견 관광지를 무료나 할인으로 입장시키면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수원화성, 화성행궁, 3개 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가 진행된 시설의 입장객이 156만 8379명으로 이벤트 전 연간 입장객 124만 9490명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중 66%가 통큰 이벤트 입장객이었다. 할인을 해주더라도 늘어난 입장객에 수원시는 현재 시즌3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30만명을 돌파해 새 이벤트를 진행했다. 수원 연고 축구구단의 홈경기 입장료 할인을 시작으로 인근 지자체인 광명시와도 제휴를 맺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시 불교계로 눈을 돌려보면 조계종 포교원은 2010년 신도멤버쉽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교무금을 내는 신규 등록자가 2만명 수준에서 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지만 이후 감소한 가입자와 멤버쉽 혜택 유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SNS포교는 온라인 포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SNS로 관심을 모은 일반인들이 사찰로 향하고, 생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신도 멤버쉽과 연계한 신도네트워크, 더 나아가 제휴 사찰의 중요소식을 전하고, 해당 사찰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 육성했으면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절묘한 만남,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빙의(憑依)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